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간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되살아날 수도 있다.